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논문개요

현대 사회에서 미(美)의 가치는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무언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향은 미용(美容)이라는 행위를 독자적인 문화로 형성시키는 원천이 되었다.

미용 문화는 한 사회를 이끄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화려하면서도 감각적인 로코코시대는 다른 어떠한 시대보다 다양한 경향이 표출되어 여러 분야에서 비일비재하게 테마로 사용되어져 왔다.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적 이미지 형성은 헤어와 메이크업을 통하여 나타난다. 현대의 여성들은 유행을 중요시하고 아름다워지려는 욕구 충족을 위한 치장을 마다하지 않는데 이는 헤어와 메이크업, 복식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미용문화를 선보인 로코코 시대의 여성들과 매우 유사하여 이 시대를 연구하는 동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복식 및 화장 문화 관련 문헌과 논문, 학술지를 참고로 하였으며 영화를 통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로코코 스타일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론에서는 18세기 로코코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특징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리 하고, 당시의 미용문화를 헤어· 메이크업· 패션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마리 앙투아네트>에 나타난 18세기의 헤어, 메이크업, 패션 경향을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는 귀족문화 중심으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뿐만 아니라 복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메이크업은 사교의 일환으로서 남

너 모두 습관처럼 분으로 얼굴을 하얗게 표현하고 볼과 입술에 연지를 발랐다. 아래 눈꺼풀에 두꺼운 화장을 하였으며 장밋빛에서 양홍 빛에 이르는 볼 화장을 유행시켰다.

이 시대의 헤어스타일은 조형성이 강조된 형태로 여성화를 추구함으로써 남성들 또한 긴 머리에 곁을 한 가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로맨틱하고 화려한 예술양식과 곡선형태의 실내장식들이 사회전반에 반영됨으로써, 헤어스타일에도 영향을 끼쳐 이 시대의 특성인 과다한 장식과 자유롭고 부드러운 곡선이 헤어스타일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는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를 모티브로 다각도에서 응용하여 창의적인 트렌드의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평면적인 표현방식을 탈피한 오브제 요소가 강조된 새로운 헤어·메이크업 스타일을 창출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에서 벗어난 패션과 예술적인 이미지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현대 사회에서 시대적 배경은 중요한 모티브이므로 시대별 미용문화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을 것이다. 때문에 시대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미용문화의 지속적인 연구과 다양한 재해석이 이루어져 한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 방법 및 범위	3
II. 이론적 배경	4
1. 로코코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4
2. 로코코시대의 특징	8
3.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	9
1) 헤어	11
2) 메이크업	22
3) 패션 및 장신구	26
III.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에 나타난 미용문화	34
1. 작품개요	34
2.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의 미용문화 분석	35
IV. 로코코시대 미용문화의 재해석	47
1. 작품의도 및 방법	47
2. 작품 및 설명	48

V. 결 론 56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18세기 여자 헤어스타일의 변천	16
<표2> 18세기 남자 헤어스타일의 변천	21
<표3> 로코코시대 미용문화 발전 경향	33
<표4>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의 인물 관계도	36
<표5> 동시대 미용문화와 영화에 나타난 미용문화 비교 - 여자	43
<표6> 동시대 미용문화와 영화에 나타난 미용문화 비교 - 남자	44

그림 목 차

<그림1> 베르사이유 궁정, 왕의 침대	5
<그림2> 팔라초 포르티치의 도자기의 방	5
<그림3> 불이 만든 루이 14세의 장식장	5
<그림4> Die Wies의 실내 인테리어	5
<그림5> 마담 풍과두르	7
<그림6> 마리 앙투아네트	7
<그림7> 장 프랑수아 드 트루와, ‘몰리에르 작품 낭독’	7
<그림8> 높은 머리형을 풍자한 그림	13
<그림9> 사다리 미용에 대한 풍자	13
<그림10> 다양한 형태의 남자 헤어피스	19
<그림11> 다양한 형태의 남자 가발	20
<그림12> 마담 풍과두르의 초상화	23
<그림13> 어느 귀족 부인의 초상화	23
<그림14> 마리 앙투아네트의 투왈렛	23
<그림15> 장 프랑수와 드 트루와의 ‘화장대에서’	23
<그림16> 애교점을 붙인 여인	26
<그림17> 18세기 여성들이 화장세트	26
<그림18> 다양한 파니에	28
<그림19> 와토가운	28
<그림20> 로브 아 라 프랑세즈	28
<그림21> 슈미즈 아 라 렌느	28

<그림22> 쥐스토코르	31
<그림23> 아비 아 라 프랑세즈	31
<그림24> 프록	31
<그림25> 르덴고트	31
<그림26> 18세기 남녀의 다양한 의상들	31
<그림27> 영화 속 마리 앙투아네트의 다양한 헤어스타일	39
<그림28> 영화 속 마리 앙투아네트의 메이크업	39
<그림29> 마리 앙투아네트의 다양한 의상들	39
<그림30> 강렬한 색의 의상을 입은 마담 뒤바리	40
<그림31> 귀족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40
<그림32> 백납분을 칠한 귀족 여성의 메이크업	41
<그림33> 영화 속 귀족 어린이들의 모습	41
<그림34> 백위그의 루이 16세	42
<그림35> 루이 16세의 궁정복	42
<그림36> 귀족 남성들의 헤어와 메이크업	42
<그림37> 귀족 남성들의 패션	42
<그림38> 연구자의 작품1. 조형적인 헤어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46
<그림39> 연구자의 작품2. 푸프(pouf) 스타일을 이용한 패치 메이크업 ..	47
<그림40> 연구자의 작품3. 웨이브(wave)을 이용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48
<그림41> 연구자의 작품4. 업스타일을 이용한 화이트 메이크업	49
<그림42> 연구자의 작품5. 투페(toupee)를 응용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50
<그림43> 연구자의 작품6. 헤어 파우더를 이용한 헤어스타일과 패치 메이크업	51
<그림44> 연구자의 작품7. 헤어 블레이드를 이용한 로코코 메이크업	52
<그림45> 연구자의 작품8. 오브제를 이용한 헤어와 메이크업	53

<그림46> 연구자의 작품9. 오브제를 이용한 헤어와 메이크업	54
<그림47> 연구자의 작품10. 오브제를 이용한 헤어와 메이크업	55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 여성들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꾸미고 꾸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무언의 수단이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아름다움은 감각에 의한, 특히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된다. 그 기준이나 이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풍조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경제·문화·예술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대 사회에서 미를 가꾸는 “미용(美容)”의 개념에서 기인하여 미용문화로 탄생하게 되었다.

현대의 미용문화는 자신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유행에 민감한 여성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그 목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웰빙(well-being)¹⁾과 동안(童顏)신드롬도 이러한 이유로 생겨난 새로운 트렌드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파되었다. 트렌드를 창조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대중매체는 더없이 좋은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이러한 매체를 통하여 계속 새롭고 화려한 유행에 따라 자기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발전시킨다.

장엄하고 딱딱한 분위기의 바로크 시대에 비해 치장을 중요시 하는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는 무엇보다도 유행과 걸치레를 중요시 여기는 현대 여성들과 유사한 부분이 보였으며 다른 어떠한 시대보다 다양한 경향이 표출되어 여러 분야에서 비일비재하게 테마로 사용되어져 왔다.

로코코 시대의 헤어와 메이크업 이미지를 현대 여성들에게 접목시켜 각양각색의 새로운 이미지 형태로 형상화시키고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으로 표현

1) 웰빙(well-being):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2003년 국립국어원에 등록되었다.

하여 새로운 뷰티 트렌드를 창출하려고 한다.

그동안 이 시대의 복식이나 헤어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있었으나 헤어, 메이크업 및 패션을 미용문화로 엮은 연구가 극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현 시대에 발맞춘 토탈 스타일링 개념으로 통합된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영화라는 매체를 이용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18세기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한다. 또한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에 어울리는 신로코코 스타일을 제안하고 로코코시대에 관한 통합 미용문화 연구의 발판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논문은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에 나타난 18세기 로코코시대의 헤어, 메이크업, 패션을 비교, 분석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연구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로코코시대의 시대적 배경 및 특징과 당시의 미용문화를 알아본다.

둘째,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에 나타난 프랑스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를 헤어, 메이크업, 패션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이론적 배경과 영화를 통하여 비교 분석한 18세기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를 토대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작품으로 표현, 트렌디한 로코코스 타일을 제안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영화 속에 나타난 18세기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에 관한 연구로서 문헌 연구와 영화를 통한 비교 분석을 그 방법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서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미용문화를 헤어·메이크업·패션으로 구분하고 남녀 두 분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참고문헌으로는 로코코시대와 미용문화에 관련된 단행본 및 연구문헌류, 인터넷 자료 등으로 하였다. 또한 영화를 통한 비교 분석 연구를 위하여 로코코 스타일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마리 앙투아네트>를 선정하였으며 영화의 시작인 1768년부터 대혁명 직전인 1780년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8세기 프랑스의 로코코시대에 대한 미용문화로 제한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로코코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유럽의 예술은 르네상스 말기 이래 바로크 시대까지는 궁정이 계속 그 중심이 되었다. 1770년대 중반이 되어서는 장엄하고 권위적인 바로크적 전통이 우아하고 유희적으로 보다 친근감을 주는 예술적 취향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로코코 양식(Rococo Style)’이다.

로코코란 프랑스어에서 조개껍질을 뜻하는 로카유(rocaille)와 코키유(coquille)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정원의 장식으로 사용된 조개껍데기나 작은 돌의 곡선’을 의미한다.²⁾ 당시 귀족들의 실내장식과 공예품 등의 조개껍질 무늬처럼 곡선 무늬가 많은 장식 미술을 조소적인 의미로 가르키던 용어였으나, 오늘날에는 18세기 유럽의 미술 및 문화 사조를 지칭하는 양식사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시대 양식의 곡선 감각은 우아하고 여성적이며 귀족적이다. 또한 반자연적인 특색을 지녔고 리드미컬한 곡선이 주제를 이루었으며 밝고 수려한 귀족취미의 문화이다. 바로크시대의 거대하고 화려한 예술양식이 섬세하고 우아한 곡선미로의 점진적인 전환으로 로코코 스타일을 이루었다. 1720년~1730년 사이에 전 유럽에 퍼져나가 건축, 실내장식, 가구, 그림, 조각, 음악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직물의 문양이나 복식에도 적용되었다.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로코코 양식은 신고전주의와 융합되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제각기 독자적으로 변형되어 발전하였다. 18세기 말기에는 신고전주의가 예술양식을 지배하면서 의복의 실루엣과 장식이 단순한 고전미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 235.



그림1. 베르사이유 궁전, 왕의 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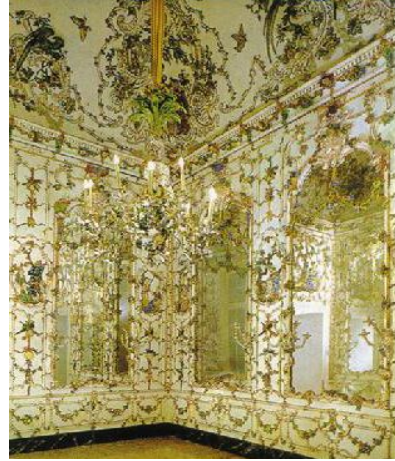


그림2. 팔라초 프르티치의 도자기의 방



그림3. 불이 만든 루이 14세의 장식장



그림4. Die Wies의 실내 인테리어

프랑스의 호화로운 궁정 문화의 시대로 부각되었던 18세기는 귀족 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살롱(Salon)문화의 시대였다. 프랑스는 세기의 문화를 대표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이전보다 더욱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으며 세계 각 국들은 프랑스 문화를 추종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로코코양식은 루이 14세 사후(1715년)부터 프랑스혁명까지(1789년)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살롱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각지에서 다양하

면서도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분위기는 형식적이고 엄격한 규칙에 얽매어 있던 바로크 왕실에서 벗어나 감성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궁정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귀족과 부유한 부르주아의 문학과 철학, 음악회, 무도회 등을 위한 사교활동의 장소였으며 당 시대의 지식인, 예술가, 지식층 인사들을 위한 사교의 장으로 개방되어 자연스럽게 여론의 중심이 되었다. 당시 계몽주의 사상가인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외 등이 살롱에서 저서를 집필하기도 하였으며 살롱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³⁾

살롱의 새로운 모드를 만들어 낸 인물은 루이 15세의 정부인 마담 퐁파두르(Madame de Pompadour, 1721~1764) [그림5] 와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1755~1793) [그림6] 이다. 이들은 18세기의 패션 리더로서 그들의 복식은 곧 프랑스 사교계에 유행이 되었고 이는 다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부르주아 출신의 퐁파두르 부인은 그 감각이 뛰어나 예술, 의상 등에도 조예가 깊었고 다른 귀족 부인들의 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프랑스 문예를 부흥시키는 큰 영향력이 되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허영과 사치의 상징으로 모든 살롱과 궁정의 모방이 되는데 앞장섰다. 최초로 황실 디자이너인 로즈 베르탱(Rose Berdin)과 헤어드레서 레오나르(Léonard)를 두어 로코코 살롱 문화를 꽃피우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림7] 참조

경제의 안정과 발전은 프랑스인들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주었고 그들의 세련된 감각과 맵시는 하나의 예술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학문적인 것보다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느냐에 중점을 두어 문화적인 수준과 예술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하여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패션 등 미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표현방식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섬유부문에 있어 새로운 방적기, 직조기의 발

3) Lamm, Robert Carson, 『서양 문화의 역사 III』 (사군자, 2001), 이희재 역, p. 49.

명으로 종래보다 폭이 넓은 직물을 빠른 속도로 생산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귀족들에게만 보여 줬던 화려함은 리본생산의 자동화로 그 양과 질이 향상되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성행하게 되었다. 로코코 의상에는 넘칠 정도의 리본이 다종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화려하고 감각적인 뉘앙스와 변화를 더해 주었다.⁴⁾



그림5. 마담 폼파두르



그림6. 마리 앙투아네트



그림7. 장 프랑수아 드 트루아, '몰리에르 작품 낭독'

4) 정홍숙, op cit, p. 239.

인쇄기술의 발달은 여러 잡지들의 발행으로 이어졌으며 1728년에 메르퀴르 드 프랑스(Mercure de France)가 개명되어 발간되었다. 이후에도 갈리리 데 모드(La Galerie des Modes)가 연간 발행되었고 이들 잡지에서는 의상의 형태·재료·착용법·자수도안 및 예의와 문화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⁵⁾

2. 로코코 시대의 특징

18세기는 바로크시대의 거대한 화려함에서 로코코의 섬세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전환된 시기로, 위용을 과시하던 것들이 유연해지고 권세에 눌려 있던 인간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었다. 이것은 외적인 형식에 우선하는 새로운 양식을 출현시킨 계기가 되었다. 예술분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경쾌하고 아기자기하며 산뜻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유롭고 친숙한 일상성과 감각성이 새로운 특징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조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히 치장을 좋아하는 로코코시대 여성을 위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패션으로 승화 되었다. 사상 최초로 황실 헤어디자이너를 고용한 마리 앙투아네트는 머리모양과 의상을 통해 로코코의 미용문화를 더욱 화려하게 부추겼으며 유행경향은 부르조아 계급의 살롱을 통하여 급속도로 퍼져나갔다.⁶⁾ 여자들은 요염한 화장과 화려한 의상으로 국왕과 귀족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으며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의 살롱 문화를 즐겼다. 이러한 분위기는 장식미술에도 영향을 끼쳐 꽃, 리본, 레이스, 루프, 꽃바구니 등의 유연한 모티브가 기묘하게 이루어져 표현되었다.

로코코풍은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 미술, 건축을 비롯하여 복식 전반을 지배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고대

5) 이정옥 외,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9), p. 240.

6) 황윤정 외(2003), “로코코시대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5권 제1호, p. 27.

식의 간소한 아름다움이 로코코 양식에 융합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굵이치는 곡선과 소용돌이 대신 품위 있는 직선을 선호하게 되었고 자유분방한 움직임에서 어떤 일정한 틀에 들어가려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극도의 쾌락에 지쳐 미와 지성이 숨쉬는 고전풍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프랑스 혁명 이후 현저하였으며 그때까지 수십 년 간은 쾌락적인 부드러운 양식과 간소한 고전풍이 부분적으로 혼합되어 나타났다.

3.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

‘향락위주의 시대’⁷⁾라고 불리우는 18세기는 17세기 말부터 번영을 누려온 귀족들의 생활이 더욱 화려하고 낭만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무거운 분위기의 바로크시대와는 달리 섬세하고 가벼운 색채와 문양의 로코코 스타일은 프랑스의 살롱 문화를 통하여 장식적인 예술양식으로 표현되었다. 헤어, 메이크업,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독자적인 한 문화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18세기의 전반적인 미용문화는 여성화를 추구함으로써 남성들 또한 긴 머리에 곁을 한 가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각양각색의 형태로 과장되고 확장된 조형으로 전개 되어 당시의 예술양식과 맥을 같이하였다.

다른 시대보다도 다양하게 나타난 로코코 시대의 유행 경향은 예술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로맨틱하고 화려한 예술양식과 곡선형태의 실내장식들이 사회전반에 반영됨으로써, 헤어스타일에도 영향을 끼쳐 이 시대의 특성인 과다한 장식과 자유롭고 부드러운 곡선이 헤어스타일에 반영되었다. 또 동인도 회사에 의한 중동이나 극동과의 무역으로 동양의 건축물과 가구

7)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London : Herbert Ltd.), p. 75.

등 다양한 문물이 유입되면서 헤어장식으로 동양풍의 공작 깃털과 원숭이 장식, 나뭇잎 등의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767년 경 파리에는 1200명의 남자 미용사들이 여성의 머리를 치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머리치장 뿐 아니라 상담사 역할까지 해 주었다. 그들은 머리미용에 대한 저서를 쓰기도 하여 1768년 리그로(Legros)는 <프랑스 여인의 미용술>을, 1778년에는 르페브르(Lefévre)는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자기 자신은 물론 남의 머리도 만질 수 있는 방법>을 출판하였다.⁸⁾ 리그로는 마담 폰파두르의 후원을 얻어 1768년 파리에 최초의 직업학교인 미용학교를 설립하였고 <코리에 드 라 모드(Corier De Le Mode)>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각 호마다 96개의 새로운 머리 형태를 소개 하였는데 1772년에 이르러 그 수는 3,744종류나 되었다.⁹⁾

미용사들이 전문적으로 귀족부인들의 머리를 만지면서부터 궁중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들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미용사였던 장 레오나르 오티에(Jean Léonard Autié)는 귀족부인들의 머리를 도맡아 능숙한 솜씨로 창조적인 머리형을 선보였다. 이 시대 모든 문화가 그러했듯이 앙투아네트의 헤어스타일도 유럽의 멋을 추구하는 모든 여인들이 모방하여 마리 앙투아네트는 유럽의 패션리더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에 반해 남자 미용사, 이발사 그리고 가발사들은 유럽 왕궁이나 도시 또는 시골에서 예술적인 활동을 하였다. 당시 머리를 빗는 것은 단순한 머리 정돈에서 벗어나 조형성과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으며 갖가지 아이디어가 머리형에 응용되었다. 18세기 유럽 전역에 파리의 미용은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프랑스의 남녀 미용사들은 유럽 전역을 넘나들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로코코의 조형적인 헤어스타일은 오늘날의 패션디자이너나 헤어디자이너들

8) 정현진 외, 『미용문화사』 (광문각, 2004), p. 89.

9) 青木英流, 『서양화장문화사』 (동서교류, 2004), 유태순 외 역, p. 85.

에게도 좋은 주제가 되어 수많은 쇼나 화보에서도 이 시대의 스타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 헤어

① 여자

18세기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17세기에 유행했던 풍탕쥬(Fontange)가 루이 14세 서거 후, 단정하고 낮은 머리 형태인 풍파두르(pompadour)형태가 유행했으나 마리 앙투아네트 시대에는 머리에 건축물과 같은 거대한 장식물로 치장한 역사상 가장 기묘한 머리가 탄생하였다. 머리의 장식물로 말 털의 쿠션, 철사 틀, 인형, 과일, 태양, 달, 별 등을 장식하여 가발과 머리카락으로 쌓아 올렸다.¹⁰⁾

오를레앙공 필립의 섭정시대부터 루이 15세 때까지는 파리의 멋을 추구하던 여인들의 높았던 머리가 납작해졌고 굽은 웨이브의 작은 머리를 연출하였다. 앞머리는 짧게 잘라 곱슬하게 고대기를 사용하고 가루를 살짝 뿌려 뒷머리는 쪽지는 것처럼 안으로 말아 넣어 때때로 레이스가 붙은 모자나 가제로 감쌌다. 목덜미를 노출시키고 리본이나 꽃 또는 깃털로 장식한 이 머리형은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마담 풍파두르가 즐겨하여 ‘풍파두르 스타일’이라고 불렸다. 풍파두르 스타일은 대형의 파니에(panier)와 조화를 이루면서 18세기 중엽까지 애호 되었다. 이 스타일 외에도 고고한 인상의 눈을 찌르는 듯 한 머리형이 등장하였는데 올림머리와 가발을 이용한 탑을 만들어 새로운 방법으로 더 쉽게 치장할 수 있었다.

1710년경에는 앞머리를 머리 뒤에 묶고 나머지는 어깨 아래로 내려 머리를 풀로 고정시켜서 내리거나, 파우더를 바르고 리본이나 얇은 천으로 마무리 짓는 형이 유행하였다. 이것은 콩트리브 쿠아튀르(contrived coiffure, 고정시

10) 이옥순 (2007),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두식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p. 26.

키는 머리형태)의 마지막 형태였다. 그러나 1712년경 리본, 아마포, 레이스의 과다 사용을 금해서 머리 형태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찾게 되었다. 특히 1730~1750년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앞머리를 뒤로 끌어내려 넘기고, 뒷머리는 웨이브 있게 꼬거나 땡아서 머리 뒤에서 정리하였고 밤에는 많은 웨이브를 어깨 위에 드리워지게 하였다. 이 시대 중반에 그리스 복고풍이 헤어스타일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세련된 여성들은 머리카락에 여러 가지 장식품을 달았다.

1750년경에는 곧게 펴서 뒤쪽으로 당긴 머리 위에 꼬불거리는 왕관모양으로 올린 ‘투페(toupee, 앞머리)’가 등장하였다.¹¹⁾ 뒷머리는 매끈한 긴 조가비형으로 목덜미 위로 흘러내리게 하였고 포마드(pomade)¹²⁾를 발라 패드 등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장식하고 머리 전체에 파우더를 뿌렸다. 양쪽머리는 컬을 주고 얼굴을 가림하게 보이게 하는 이 머리형에는 갖가지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1780년의 투페는 과거보다 더 불룩하게 연출하였고 옆머리를 곱슬거리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노출시켰던 귀를 덮었다.

1760년경이 되어 여자 머리형에 변화가 나타나 점차 높아지고 거대해져 갔으며 그 위에 장식이 또한 높이 쌓여졌다. 이러한 취향은 로코코의 여성이라 불리우던 마리 앙투아네트 시대에 이르러 그 높이와 장식기교가 절정에 이르렀다. 모든 프랑스의 여자들은 여왕의 머리모양을 모방하여 지나치게 거대한 머리 높이와 장식을 과용하여 병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이런 머리형을 위해 여성들은 10일에서 3개월까지 머리를 빗지 않고 그대로 두어 악취가 생기게 되었고 그라투아르(Grastoir)라는 머리를 굽는 도구가 생겨 쓰이기도 하였다. 여성들의 지나친 머리 형태에 대하여 많은 비평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는데 희극뿐 아니라 판화나 그림 등에서도 높이만 올라가는 여성의 머리형에 대한 걱정이 잘 나타나있다.¹³⁾ [그림8]

11) 정현진 외, 『미용문화사』 (광문각, 2004), p. 102.

12) 포마드(pomade) : 점성유지와 납의 혼합물로 만든 정발료(整髮料). 향료나 수지(樹脂)를 사과 속에 채워 넣어 소나 말의 기름 속에 담가 두었다가 꺼내어 지분(脂分)을 분리하여 만든다.

미용사들이 사다리 꼭대기에 기어올라 유행에 맞는 머리를 만들고 이 머리를 한 여성들은 문이 너무 낮아 몸을 숙이고 드나드는 옷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자 과장된 허풍이라는 의미의 ‘푸프(Pouf)스타일’ [그림9] 이라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다리 미용’이라고 풍자되기도 하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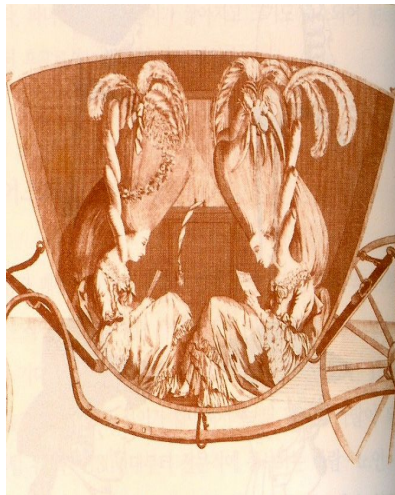


그림8. 높은 머리형을 풍자한 그림



그림9. 사다리 미용에 대한 풍자

푸프 스타일은 방석을 이용하여 머리를 장식할 정도로 매우 독창적이었으며 미용사들은 끝없는 상상력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푸프는 나중에는 기계적인 푸프가 발명되어 집안을 드나들 때는 푸프만 구부러지게 하기도 하였다. 그 이름과 재료도 무한하여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장식 외에 나무판, 인형, 달, 별, 실물의 과일까지 사용하였고 그 배치와 모양에 따라 ‘아름다운 화원’, ‘사랑의 끈’ 등으로 불리웠다. 머리형의 주제에도 한계가 없을 정도로 최근 일어난 사건을 머리로 표현하여 유리로 만든 돛단배, 마차, 대포 등도 머리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사건 등을 머리에 장식으로 표현하여 머리 형태는 상상을 초월한 극단적인 형

13) 이옥순, op. cit, p. 58.

14) 정현진 외, op. cit, p. 104.

태가 유행을 하고 머리의 장식물은 시사성이 있는 것으로 그 시대를 풍자하기도 했다.

여인들의 인위적인 미를 위한 머리다발의 사용이나 금발 또는 갈색으로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머릿결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모발을 자라게 하는 포마드와 향료, 향수 및 다양한 색의 파우더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검은 머리를 선호하였으나, 아침에는 짧은 자연 모발을 하고 저녁에는 자연 모발과 다른 색의 가발을 썼다. 이러한 파우더의 절정은 마리 앙투아네트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금발 머리가 다시 유행하였는데 갈색 머리도 한동안 나타났다가 곧 사라졌다. 남녀를 불문한 머리치장용 백분의 사용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도 챙겨 갈만큼 유행하였으며 백분을 뿌리는 일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여 ‘페리퀴에(perruquier)’라는 전문가의 손을 빌었다.¹⁵⁾ 당시 사용한 백분은 주로 전분이나 곡물가루고 대기근이 닥친 1740년에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새로운 법이 지정되기도 하였다.

1768년에 생긴 르드페어라는 머리 형태는 솜이나 삼실 부스러기 패트, 철사 줄로 속을 만들고 그 위에 자연모발이나 인조 모발을 올려놓았다. 또 그 위에 잘 다듬어진 얇은 천, 리본 및 커다란 깃털을 이용하여 여러 색의 조화로 머리를 장식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머리 형태들이 있었는데 아라 시블레(à la Cybele)는 자연모발이나 인조 모발을 1피트 정도 높이 올리고 탑처럼 만드는데 고대 뷔스토의 시블레(cybele) 탑 같은 모양이었다. 또 아라 고르곤느(à la Gorgonne)는 컬이 좀 느슨하고 가볍게 만들어 머리가 움직일 때마다 꼬이게 하는 것이었고, 아라 브니스(à la venus)는 비너스와 같이 보이게 컬을 약간만 표현한 것이었다.¹⁶⁾

1770년대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머리 형태가 무척 화려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패션의 발단은 유한 계급의 출현과 위생 개념의 미

15)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안, 2006), p. 226







16) 이옥순, op. cit, p. 67.

속 등에서 기인한다. 개인의 외모가 다급한 정치적 혼란보다 더 주된 관심사였던 시기였고 헤어스타일은 거대한 형태였다. 그러나 루이 15세의 정부이었던 마담 뒤바리(Madame de Barry)의 머리인 바른 쪽머리같은 간단한 형태도 유행하였다.

1780년부터 거대한 머리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마리 앙투아네트는 출산으로 인한 탈모현상으로 전용 미용사인 레오나르는 그녀를 위한 ‘어린아이’머리를 창안하였다. 앞머리를 얼굴에서 15cm정도 잘라 곱실거리게 컬링하고 두 가닥의 긴 머리채가 영국스타일의 굵은 웨이브 형태로 흘러 내려오게 한 후 그 위에 머리분을 뿌린 스타일이다. 이 후 1789년 대혁명과 함께 대형 스타일이 사라지고 약간 높은 머리 스타일만 궁중의 공식석상에서 쓰게 되었으며 일반인의 머리형이나 모자는 작아졌다. 머리에 폭넓은 카도간을 해서 리본으로 묶어 깃털, 꽃으로 장식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이 무렵 티투스 컷(titus cut)이라는 짧은 머리가 유행하게 되었으나 머리가 자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 여성들은 ‘캐쉬폴리(cache-folies)’라 불리는 가발을 사용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그리스풍의 영향으로 머리형에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 부피도 줄어들고 형태도 차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헤어스타일에 대한 변화는 자주 일어났으며 일반적으로 자연형을 따르는 복고풍의 경향이 일어났다.

이러한 18세기 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을 <표1>로 정리하였다.

<표1> 18세기 여자 헤어스타일의 변천

		
<p>퐁탕쥬 스타일 Fontange style</p>	<p>.덴마크식 스타일 Dutch coiffure style</p>	<p>퐁파두르 스타일 Pompadour style</p>
		
<p>마리안투아네트 스타일 Marie Antoinette style</p>	<p>뒤바리 스타일 De Barry style</p>	<p>티투스 컷 스타일 Titus-cut style</p>

② 남자

18세기 남성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발과 관련된 것으로 장소와 직업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가발의 사용은 “루이 13세가 loss hair를 감추기 위한 방법”¹⁷⁾으로 인하여 착용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와전되어 자연스레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루이 14세 시대에 이르러 상류계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바로크

17) Mary Brooks Picken, *The Fashion Dictionary*,(New York: Funk and Wagnalls,1973), p. 411.

시대의 남성들이 대형 가발을 사용했던 것에 반하여 로코코 시대에는 경쾌하고 우아한 모습의 헤어스타일을 추구하였다.

다양한 재료들이 가발의 재료로 사용되어 사람의 머리털, 동물의 털이나 꼬리, 모헤어 털실, 철사 등이 이용되었다. 외관상 뒤쪽에 늘어뜨린 꼬리부분은 모두 똑같지만 앞머리의 길이와 흐름의 방향, 옆머리, 컬의 형태와 수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었다.

남성의 머리 형태는 가발의 유행으로 매우 다양 하였으며 17세기의 거대한 가발인 풀버텀 위그(Full-bottomed wig)¹⁸⁾는 1710년경부터 높이가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져 편리한 가발의 형태로 변화 되었다. 1730년에 이르러서는 전문직, 노인, 궁정복 착용 시 이용되었으며 법관이나 성직자들의 위엄을 위한 것으로만 남게 되었다.

18세기에 귀족과 일반인들에게 성행한 스타일로는 머리의 높이를 낮게 하고 뒤에서 한 묶음으로 리본을 매어 연출하거나, 이 외에 옆머리를 짧게 잘라 비둘기 날개형이나 컬로 다듬고 뒷머리는 ‘크라포(crapaud)¹⁹⁾에 넣어 그 위 끝을 끈으로 조이고 나비 묶음으로 한 백 위그(bag wig)스타일이 있다. 백위그는 1700년 이전부터 서민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옷에 머리분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1730년대에 들어와 크라포 부분이 커지면서 품위를 더하여 많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묶음 가발이나 주머니 가발의 리본 끝은 목 앞으로 한 바퀴 돌려서 나비매듭으로 묶어 솔리테르(solitaire, 나비매듭리본형태)라 불리웠으며, 보석이 달린 클립이나 다이아몬드 핀으로 고정시켜 남성의 검은 견 넥타이의 기원이 되었다.

또 다른 형태의 헤어스타일은 ‘피그테일(Pig tail, 辮髮)’이라 불리우는 중국인의 변발처럼 보이는 땃은 형태의 머리이다. 퉁구스족과 만주인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어 단정하고 편리한 머리 형태로 자리

18) 풀버텀위그(full-bottom wig) : 1660년대 이후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로 긴머리의 가발이다.

19) 크라포 : 머리를 넣는 검은 태피터 주머니를 뜻한다.

잡아 정장이 아닌 복장에 주로 썼고 매우 스마트한 형태였다. 피그테일의 변형인 라밀리 위그(Ramillies wig)는 군대에서 선호한 가발로 1706년 말보로 공작이 이끄는 영국군이 라밀 전투에서 승전한 것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이 가발은 피그테일의 상하 두 군데가 검은 리본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땀은 머리를 밑에서 고리로 만들어 리본을 묶는 형태도 있었다.

보브 위그(Bob wig)는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겨 목이 보일 정도로 짧거나 목을 가리는 것으로 머리 끝은 둥근 쉘이나 웨이브가 있다.지는 가발이다. 모든 계층에서 정장이 아닌 복장을 할 때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1790년까지 쓰였다.

1730년경에 가발이 다시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 때 유행한 남자의 가발 형을 크게 분류해 보면 웨이브와 쉘이 있는 형과 머리를 땀아서 리본으로 묶거나 주머니에 넣은 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외 상인과 마부들은 ‘칼리플라워(cauliflower)’라 불리는 주로 짧은 단발 가발을 착용하였고 카톨릭 성직자는 유사한 형태의 가발을 삭발을 한 민머리에 썼다.

18세기 중엽의 모든 사람들이 가발을 사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자연적인 머리를 가발을 쓴 것처럼 하기 위해 목덜미에 묶었는데 이는 타이위그(tie wig)라 하였다. 이 가발은 전두부에 원하는 높이만큼 붙이는 가발(postiche)를 함께 사용하여 어느 것이 자연적인 머리인지 가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또한 가발의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여 그것으로 직업과 사회계층의 지위를 구별할 수 있었다. 리본으로 끝을 묶는 브리카띠에르(brigadiere)형, 각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모발 길이, 쉘의 모양, 땀는 방법에서 형태가 달라져보였다.²⁰⁾

컷 위그(cut wig)는 땀은 머리를 검정색 네모난 주머니에 넣고 뒷목에서 검정색 리본으로 나비처럼 묶어 주는 것으로 정장 차림에 이 가발을 사용하

20) 안유리(2004), "18세기 로코코시대의 헤어 패션의 경향(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p. 31.

였다.²¹⁾ 1770년대에 유행한 카도간 위그(catogan wig)는 옆면은 두 개의 구불거리는 머리채가 얼굴을 감싸 귀를 가리게 하고, 뒷면은 머리단은 ‘카도간’이라는 검은 리본으로 묶고 리본의 나머지를 앞 목에서 브로치로 고정시킨 스타일이였다. 이 무렵에는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높아져가던 같은 시기로, 그리스 형 또는 말굽 형이라고 불리는 붙이는 앞머리(투페, Toupee)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모발에 웨이브를 넣어서 두루마리 모양으로 모은 후 철사 골조를 넣어 귀로 쌓아 올리듯 만든 것이였다. ‘아 라 누벨 아도니스(à la nouvel Adonis)’라고 불리던 하얀 가발로 이 스타일은 여성들도 똑같이 따라 했으며 1740년부터 1760년까지의 남녀 모두 비슷한 형태의 머리를 선보였다. 보통 정장에는 백 위그가 공인된 형이었고 뒤의 보우(bow)는 작아졌다. 1780년대 모드는 덩수룩하게 컷된 어리서(hérrosson=hedge hog)스타일로 앞머리는 짧게 잘라 얼굴 주위에 곱슬 하게 하여 후두부에는 늘어진 곱과 카도간 스타일로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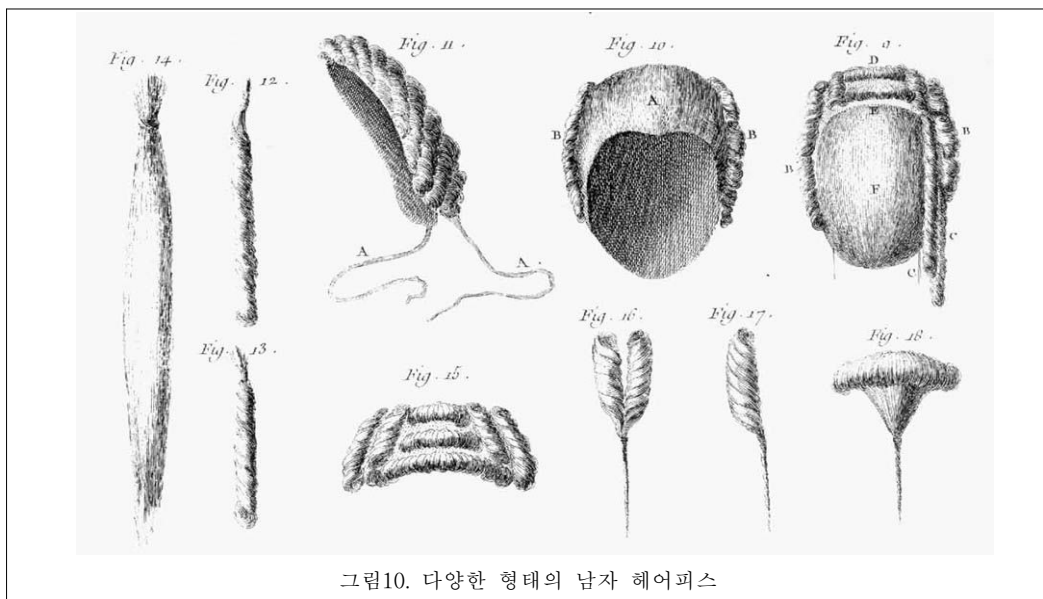


그림10. 다양한 형태의 남자 헤어피스

21) 안현경(1997), “17·18세기 바로크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4,1, p.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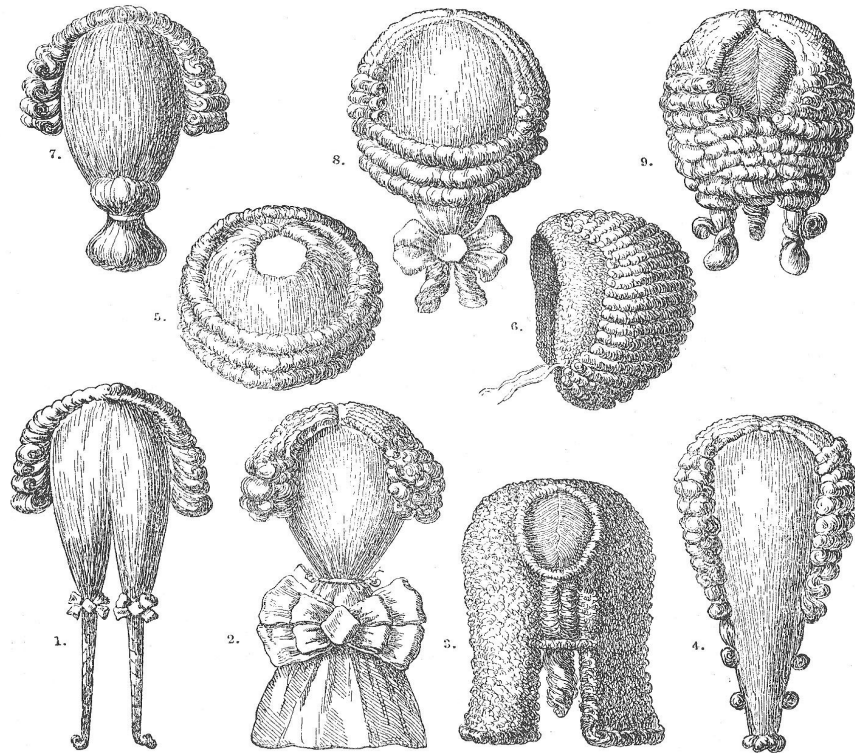


그림11. 다양한 형태의 남자가발

로코코시대의 가발은 루이 14세가 태양왕으로 군림하던 17세기에 가장 발달하였고 주로 검정색을 착용하였다. 때로는 갈색, 적갈색, 옅은 황갈색, 회색으로 만들어져 인공적으로 염색되기도 하였다. 가장 선호했던 가발 색상은 갈색으로 마치 위엄 있는 사자와 같이 보였기 때문이라 한다. 정장 착용 시에는 반드시 가발에 파우더를 뿌렸으며 이는 살롱에서의 에티켓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갖가지 색의 밀가루를 과도하게 뿌렸다.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흰 색이었으며, 로코코시대의 방종함과 절도 없음은 이 같은 파우더의 사용량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 마침내는 한 해에 200만 파운드의 밀가루를 필요로 할 정도가 되었다. 이 때문에 1780년경에는 머리분의 사용자는 국민의 식량을 낭비하는 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프랑스 혁명을 거치는 동안 귀족

들도 자기 머리를 기르게 되었고 목사나 학자는 극히 일부 사람만 19세기 초까지 가발을 사용하였다.²²⁾ 보통 자신의 두발을 밀어버리거나 짧게 컷을 한 후 착용 되었으며 열을 가한 빌보케(bilboquets), 룰레트(roulettes)²³⁾에 말아 쥘을 만들었다. 가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보통 둥근 막대, 패드 등의 위에 올려놓아 모발을 컬링 해 두었으며 후두부의 모발은 묶어 망이나 그물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 귀족풍이 퇴색하게 되면서 가발과 파우더는 사용은 명맥상으로만 유지 되었다. 이 시대의 남자 헤어스타일의 변화과정을 정리 한 것은 다음의 <표2>과 같다.

<표2> 18세기 남자 헤어스타일의 변천

		
백 위그 스타일 Bag wig style	라밀리 위그스타일 Ramillies wig style	보브 컷 스타일 Bob-cut style
		
카도간 위그 스타일 Cadogan wig style	투페 스타일 Toupet style	어리서 스타일 hérrosson style

22) 정홍숙, op. cit, p. 267.

23) 룰레트(roulettes) : 머리를 지지는 작은 인두

2) 메이크업

16세기 이후 예술의 발전, 종교개혁, 자본주의의 출현, 정복에 의한 식민지 개척 등이 이루어졌다. 점차 개인주의와 향락주의가 만연해지고 과장된 의복과 장식이 귀족이나 부유한 계층에 의해 더욱 강조 되면서 화장품이 상류층에 과도하게 사용되었다.

18세기의 메이크업 경향은 약 1700년경 프랑스 궁정의 여성들은 얼굴을 하얗게 하고, 가슴에 파란색의 정맥(물에 씻기는 파란색 잉크로 가는 선)을 강조하였고, 눈썹은 펜슬로 그렸다.²⁴⁾ 이때는 창백하게 보이도록 백납분을 바르고 흰 피부를 표현하였으며, 윤기 있어 보이기 위해 광택이 나는 도료를 그 위에 덧발라 얼굴의 움직임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인위적인 화장을 하였다.²⁵⁾ 이렇듯 얼굴에 분을 많이 바르는 것이 유행했는데 얼굴은 하얗게 눈썹은 검게, 혈관은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치장하였고 인공적인 붉은색이 인기를 얻었다. 백분을 바르고 그 위에 빨강을 바르는 홍색 화장법은 18세기 말까지 계속 되었다. 당시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우스꽝스러운 둥근 핑크빛의 연지와 이중 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백납분은 그들의 실제 나이를 감춰 노인과 청년과의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사용되었으며 실제의 사용목적도 ‘젊음의 회복’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의 메이크업은 사교의 일환으로서 남성의 메이크업도 여성과 같이 습관화 되어 분으로 얼굴을 하얗게 표현하고 볼과 입술에 연지를 발랐다.

루이 15세의 정부인 마담 폰파두르 [그림12] 와 뒤바리, 마리 앙투아네트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메이크업은 질게 화장하고 이마의 헤어라인을 족집게로 머리털을 제거하여 높은 이마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림13]

참조

24) Robyn Cosio, 『눈썹의 역사』 (동서교류, 2005), 허준 역, p. 13.

25) 青木英夫, op. cit, p. 51.



그림12. 마담 폼파두르의 초상화



그림13. 어느 귀족 부인의 초상화



그림14. 마리앙투아네트의 투왈렛



그림15. 장 프랑수와 드 트루와의 ‘화장대에서’

현대 프랑스에서는 화장실을 가리키는 ‘투왈렛(Toilette)’은 18세기에는 몸을 치장하는 모든 행동을 총칭하는 단어로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것뿐 아니라 목욕을 하고, 이를 닦는 것까지 모두 투왈렛이라고 했다.²⁶⁾ 귀족 여성들은 세수와 볼일을 마친 후 ‘투왈렛 오피시엘(Toilette officielle)’이라는 시간을 갖는데 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공적인 화장’이 된다. 이 시대의

26) 이지은, op. cit, p. 212.

패션리더인 마담 퐁파두르나 뒤바리, 마리 앙투아네트의 투왈렛 [그림14]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으며 당시의 메이크업은 변신 그 자체였다. 이마는 최대한 하얗게 하고 관자놀이 부분은 약간 덜 발라서 피부색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볼은 약간 파란 빛이 돌며 특히 입술 주변은 석고처럼 희게 바르는 것이 정석이었다. 그 후에 얼굴에 활기를 주기 위하여 색조화장을 하였는데 눈썹은 재가루를 기름에 녹여 만든 연필로 정확히 일자가 되게 그렸으며 ‘크레퐁(Crépon)’이란 솜뭉치에 양홍 염료를 묻혀 볼과 얼굴 주변에 붉게 터치를 넣었다. 붉은 색의 정도에 따라 계층 간의 구별이 있었는데 창녀 같은 낮은 계급의 여성들은 피처럼 붉은 색을 발랐고 귀족들이나 궁정인들은 장밋빛 또는 선홍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18세기 귀족들이 사용한 연지의 붉은 빛은 진홍색에서 자홍색, 장미색, 주홍색을 거쳐 주황에 이르기까지 넓어졌다. 분을 바른 얼굴은 흰 바탕이었으며 관자놀이 부근은 갈색, 입술주위는 밝은 색조를 발랐고 광대뼈와 눈 가까이에만 원형으로 연지를 칠했다.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아래 눈꺼풀에 두꺼운 화장을 했는데 그러한 기교가 눈에 열정을 부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중산 계급들의 남녀들도 가감 없이 궁정의 풍습을 따라하여 장밋빛에서 양홍 빛에 이르는 볼 화장을 시작하였다. 관능미를 부각시키고 늙은 모습을 가려주는 연지 덕분에 눈속임은 절정기를 맞이하였고 유아기를 넘긴 모든 얼굴에는 화장품을 발랐다. 잠을 잘 때에도 열은 연지를 발랐으며 궁정에서는 그 강렬함을 알 수 있는 암홍색을 칠했다. 하지만 중산 계급이 무분별하게 연지를 사용하는 동안, 유행하는 색은 자홍색, 유녀들이 특히 선호했던 꼭두서니색으로 순차적으로 바뀌었다.²⁷⁾ 화장은 상류 계층의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치장의 일부가 되었다. 상류 귀족 여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공들여 치장하는 것이 생활이었으며 이는 남성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력을 외향의 치장과 향락에 바쳤다.

27) Dominick Parker, 『화장술의 역사:거울아,거울아』 (시공사,1998), 지현 역, p. 54.

17~18세기에 들어와 화장품의 제조는 주로 이발사나 엉터리 의사, 심지어는 연금술사에 의해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져 부적, 미신 등의 마술적인 처방과 함께 선전되었다. 화장품의 유해한 성분 때문에 부작용으로 희생되는 여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은 증가하였다.

화장의 기본이었던 백납분은 파우더에 달걀 흰자와 식초를 섞어 발랐다.²⁸⁾ 볼에는 중국, 일본산의 붉은 화장품을 발랐으며 이 화장품의 주 색소는 수은, 알칼리 염료, 백납과 백분 등을 포함하여 유독성이 있는 물질이었다. 납은 파운데이션과 눈썹화장에 사용되었고 쥐가죽으로 만든 인조 눈썹을 붙이기도 하였다. 1780년대가 되면서 피부에는 안전한 활석가루를 사용하고 입술에는 카민 안료와 석고분 연지를 쓰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독성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스럼이나 뽀루지, 안질 등이 끊이지 않아 이를 감추기 위한 패치(patch)는 필수품이 되었다. 원래 뷰티패치(beauty patch) 또는 뷰티스팟(beauty spot)은 창녀와의 구별로 사용되었으며 후추, 비단, 검은 벨벳 등의 천 조각과 종이조각 등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가락 크기만큼 잘라 아교를 사용하여 얼굴에 붙였다. [그림16] 검거나 붉은 실크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형태가 흉터나 결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얼굴에 더 하얗게 돋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늘어났으며 패치의 모양과 붙이는 위치에 따라 고유한 이름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촉촉하게 빛나는 눈빛을 위해 가지과에 속하는 벨라도나(belladonna)의 즙을 이용하여 눈동자의 동공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18세기 유럽의 화장은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지나친 경향을 보여 화장을 하기 전의 모습과 한 후의 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귀족들의 사치와 타락에 대해 1711년 영국의 'spectator'라는 잡지에서 여성들을 painted picks(채색된 그림)²⁹⁾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에 프랑스 혁명으로

28) 설혜심,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 (한길사, 2002), p. 242.

29) John Ligget, *The Human Face*(New York:stein and day), p. 55.

인한 귀족사회가 붕괴되면서 자연에서 추출한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는 화장으로 변화하였다.

색채에 있어서는 경직된 위엄 대신 경박한 향락을 나타내는 색상이 유행하여, 바로크 시대의 황금색 대신 은색이 대두 되었고 립은 자주, 어두운 노랑, 옅은 장밋빛, 바랜 초록 등이 선호 되었다.



그림16. 애교점을 붙인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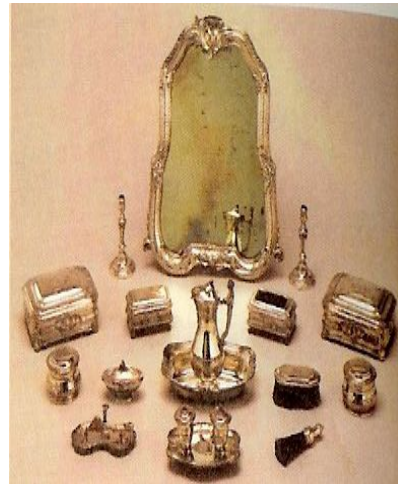


그림17. 18세기 여성들의 화장세트

3) 패션 및 장신구

① 여자

로코코시대는 보통 세 시기로 나뉜다. 루이 15세의 섭정기(1725~1774), 루이 15세의 친정기(1723~1774)와 루이 16세 시대(1774~1792)로 구분한다. 복식 문화를 중심으로 이 세 시대를 연구해 보면, 로코코 양식으로 가장 화려한 시기는 중기인 루이 15세 때와 루이 16세 시대의 초기로 볼 수 있다.

로코코풍의 의상은 그 시대 궁정 여인들의 의상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의 관능적이며 향락적인 생활이 의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8세기의 복식은

가슴은 깊게 파고 허리를 줄라매어 힙 부분을 펼침으로써 여성적인 곡선미를 의식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복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적인 우아함을 띠게 하였다. 복식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화려하였으며 방탕한 귀족주의는 일반인들의 불만을 크게 일으켰다. 이는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 혁명이후에는 자연 그대로의 고대 스타일의 간소한 아름다움이 단순화되어 등장하였다.

로코코 시대 전반(1724~1750)에는 의상 한 벌에 레이스, 꽃, 깃털, 리본 등의 모든 장식요소가 사용되었다. 로코코의 취향이 점차 짙어지던 후반에 들어서며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팔과 목을 드러내고 소매에는 팔꿈치로부터 층층으로 풍부한 주름 레이스를 덧붙였다. 가슴은 강조하여 데콜테로 뒀으며 허리는 코르셋으로 조여 가냘픈 여성미를 강조하며 힙은 파니에(panier) [그림18] 로 크게 부풀렸다.³⁰⁾ 파니에는 프랑스어로 ‘바구니’라는 뜻으로 스커트 속에 받친 구조물이 바구니를 닮은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시기에 여성용 드레스의 폭이 극에 달하여 두 귀족부인들이 문을 나란히 통과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18세기 여성의 복식의 기본은 로브(Robe), 슈미즈(Chemise), 외투(Outer wrap) 등으로 이루어진다. 로브는 로코코시대 대표적인 여자 의상으로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전개되었다. 로브의 전형적인 모습은 가슴을 깊게 판네크라인과 크게 부풀린 스커트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매 끝에 다는 3~4겹의 층을 이루는 레이스 러플인 앙가장트(engageantes)와 스커트 A형 트림의 가장 자리나 페티코트 드레스에 사용된 팔발라(falbalas:형 겹이나 레이스를 주름잡아 만든 트리밍)로서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장식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뒤의 주름이 풍성한 와토 가운(watteau gown) [그림 19] 은 18세기 대표적인 로브로, 그 형태에 따라 앞까지 풍성한 로브 볼랑

30) James Laver, 『서양 패션의 역사』 (시공아트, 2005), 정인희 역, p. 144.

(robe volante)과 앞은 꼭 맞고 스커트가 더욱 넓어진 로브 아 라 프랑세즈 (robe á la française) [그림20] 로 나뉘어진다.



그림18. 다양한 파니에



그림19. 와토가운



그림20. 로브 아 라 프랑세즈



그림21. 슈미즈 아 라 렌느

로코코 말기의 대표적인 로브인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이 시대 양식의 특성인 우아한 곡선의미를 잘 나타내 주었다. 루이 15세의 정부인 마담 폰파

두르에 의해 가장 발전되었으며 로코코 최성기 의상을 대표한다. 꽃, 레이스, 리본, 조화 등을 목둘레나 스커트 가장자리에 달았는데 그 우아함과 화려함은 완전한 예술품이라 할 수 있었다. 1774년을 정점으로 프랑스 혁명이전까지 궁중에서 사용되었으나 1770년대 후반부터는 좀 더 간소한 로브들이 등장하여 스커트의 부풀림이 소극적이 되고 간편해지면서 변화를 줄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로브 아 라 폴로네즈(robe á la polonaise)이다. 폴로네즈는 1770년경 폴란드의 민족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1776년에서 1787년까지 유행하였다. 이는 로코코 말기의 대표적인 로브로 특징적인 것은 오버 스커트를 여러 개의 드레이프로 부풀려서 양 옆과 힙 쪽에 놓이게 한 것이다. 소매는 자보 슬리브(jabot sleeve)로서 팔꿈치까지는 꼭 맞고 그 끝은 러플로 장식했다. 이외에도 로브 아 라 폴로네즈의 변형인 로브 아 라 시르카시엔느(robe á la circassienne)³¹⁾, 영국식 재킷으로 부인용 승마복에서 유래한 로브 아 라 카라코(robe á la caraco)와 로브 아 라 랑글레즈(robe á la l'anglaise)³²⁾, 1781년 매우 인기 있던 스타일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음 입었던 슈미즈 아 라 렌느(chemise á la reine)³³⁾ [그림21], 남성적인 디자인의 르댕고트 가운(redingote gown)³⁴⁾, 만투아(mantua), 버슬 드레스(bustle dress) 등이 있다. 이 시대의 외투로는 로브 위에 입는 방한복 외투인 망토 모양의 플리스(pelisse)와 후드가 달린 망토 스타일의 펠레린(pèlerine)이 있다.

31) 로브 아 라 시르카시엔느 : 로브 아 라 폴로네즈처럼 스커트가 세 개의 큰 퍼프로 드레이프 되는 가운으로 오버 스커트를 커튼처럼 걷어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32) 로브 아 라 랑글레즈 : 영국풍 유행에 의한 실용적인 스타일로 파니에 없이 엉덩이 부분에 패드된 버슬만 입고 착용하는 로브로서 몸에 꼭 끼는 바디스로 가슴을 강조하고 뒷부분은 뽕족하게 예각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33) 슈미즈 아 라 렌느 : 프랑스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음 입은 가운으로 퀸즈 가운(queen's gown)이라고도 하며 속에 파니에를 입지 않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보여준다.

34) 르댕고트 가운:여자 코트의 시초로 두 줄 단추에 여밈이 있으며 폭넓은 라펠과 허리의 테슬장식이 있다.

② 남자

18세기 남성의 기본 복식은 17세기에 확립된 코트, 웨이스트 코트, 셔츠 그리고 바지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세기의 진행에 따라 재단방법과 실루엣의 변화가 있었다. 일상복과 특별한 경우에 입는 의식복의 품목은 형태에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사용한 직물에 따라 실크나 브로케이드로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자수나 기타 장식을 한 것은 의식복으로, 실용적인 직물로는 일상복을 만들어 입었다.

바로크 시대인 1670년쯤에 쥐스토코르(justaucorps) [그림22] 라는 실용적인 의상이 확립된 후 남자 복식은 단지 기능적인 의상으로 발전할 뿐이었다. 로코코 시대에도 그대로 지속되었으나 재킷의 전신인 쥐스토코르는 코트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다.

남자들의 긴 상의로 여러 개의 단추와 단춧구멍으로 디자인 된 긴 상의의 쥐스토코르는 17세기 네덜란드가 패션을 주도하던 시기에 시민 중심의 모드가 되면서 널리 입혀지기 시작하였다. 시대의 취향을 반영하여 허리는 여성복과 같이 허리는 약간 들어가고 험으로부터 단까지는 밖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실루엣이 특징이다. 곡선적인 실루엣의 우아함은 로코코의 우아한 살롱문화 안에서 더욱 세련되어져 18세기 중엽쯤에는 정점에 달했던 것으로 추론된다.³⁵⁾ 쥐스토코르는 처음에는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으나 차츰 하류층에서도 입게 되었고, 형태는 같으나 옷감에서 실크나 벨벳 등 값비싼 직물에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아 장식한 것은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á la française) [그림23] 라고 하였다.

1725년 경에 영국에서부터 유행한 프록(frac) [그림24] 은 프랑스에서는 18세기 후기에 널리 입혀졌다. 아비 아 라 프랑세즈에 대한 반동적인 취향에서 나타난 코트로 형태는 비슷하였다. 이 외에도 르댕고트(redingote) [그림25] 는 영국의 승마용 라이딩코트(riding coat)에서 유래된 것으로 길이는

35) 정홍숙, p. cit, p. 258.



그림22. 퀴스토코르



그림23. 아비 아 라 프랑세즈



그림24. 프록



그림25. 르덴고트



그림26. 18세기 남녀의 다양한 의상들

쥐스토코르나 프록과 같거나 약간 길며, 앞단에는 단추가 달리고 뒤 중앙에는 슬릿을 넣어 활동성을 부과하였다. 프랑스 인의 감각에 의해 세련되게 각색되어 루이 16세 시대에는 모양과 재료가 한층 품위를 갖추어 궁중에서 아비 아 라 프랑세즈 대신으로 착용 되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상의로 착용했던 푸르푸앵이 쥐스토코르 속에 입혀지면서 실내복으로 변한 것을 베스트(vest)라고 하며 외출할 때에는 이 위에 아비 아 라 프랑세즈나 쥐스토코르, 프록을 착용했다. 겉옷의 앞단추를 잠그지 않고 열어 놓아 속에 입은 베스트를 보이게 하여 장식적인 성격을 띠면서 앞 중앙과 포켓근처에 보색 대비로 섬세한 꽃 모양을 수놓았다. 길이는 초기에는 쥐스토코르나 프록보다 약간 짧았으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길이가 더욱 짧아졌다.

로코코시대의 남자 바지(breeches)는 무릎 바로 아랫길이이고 다리통에 꼭 끼는 것이 특징이다. 후기로 갈수록 통은 더욱 좁아지고 말기에는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바지가 유행하였다. 대표적인 예인 쿨로트(culotte)는 무릎 밑까지 오는 통 좁은 바지를 말한다. 남성들의 넓적다리의 곡선이 그대로 보여질 정도로 타이트하게 착용함으로써 육감적인 남성미를 과시하려 했다. 가죽을 재료로 사용하여 더욱 타이트하고 탄력 있는 쿨로트가 상류사회에서 유행하였고 이 외에도 흰색의 새틴소재도 많이 애용되었다. 초기에 무릎 위에 오던 짧은 길이가 1730년경부터 무릎 밑에까지 내려왔고 좁은 밴드와 단추로 꼭 맞게 채워졌다.³⁶⁾ 이 시대의 남성의 외투는 여성들이 사용한 것 과 같은 것으로 외투로 마루에 깔릴 정도의 대형 플리스(pelisse)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18세기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의 경향을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으로 나누어 <표3>으로 정리하였다.

36) 정홍숙, op. cit, p. 263.

<표3> 로코코시대 미용문화 발전 경향

시대	구분	여 자			남 자		
		Hair	Make-up	Fashion	Hair	Make-up	Fashion
초 기							
							
							

Ⅲ.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에 나타난 미용문화

1. 작품개요

1) 작품개요 및 배경

2006년 미국에서 제작된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 (Marie-Antoinette, 2006)>는 제 79회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하였으며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직접 촬영하여 그 특유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한 작품이다. 18세기 프랑스의 화려한 장식과 여성적인 아름다움의 로코코시대를 감각적인 영상과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또한 이시대의 특징적인 살롱 문화를 찾아 볼 수 있는 영화이다.

영화의 배경인 18세기의 프랑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루이 14세 때 성직계급의 호화로운 생활과 영·러 전쟁의 실패로 인한 채무 증가로 위기에 처하기 시작하였다. 루이 15·16세의 화려한 궁중생활과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미국 독립전쟁의 지원 등은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악화시켜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시민계급의 원성을 사기 시작하여 프랑스 혁명의 계기가 되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인 화려한 살롱 문화는 프랑스 문화의 전파와 탄생, 사상의 발전의 원천이 되었으며 귀족과 부르조아계급의 사교장으로 여론의 중심지가 되었다.

2) 내용

1768년 오스트리아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와의 동맹으로 루이 15세의 손자인 황태자와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된다. 나이 어린 14살의 마리 앙투아네트는 타국에서 궁정생활은 프랑스의 귀족 부인들에게 둘러 쌓여 프랑스인으로 만들어진다. 루이 16세는 너무 진지한 스타일인 반면 마리 앙투아네트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무뚝뚝하기만 한 남편 때문에 마음 둘 곳 없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국가간의 동맹도, 어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도 귀 기울일 여유가 없을 정도였다. 남편과의 서먹한 관계와 베르사이유에서의 삶은 수많은 예절 규범이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여 그녀의 생활은 답답하기만 하였다. 외롭고 힘겨운 마리 앙투아네트는 옷이나 머리, 장신구 등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의 과소비나 스페인 귀족 페르젠과의 염문도 염두해 두지 않았다. 왕비가 되어서도 그녀의 사치는 정도를 극에 달하였고 소극적인 성격의 루이 16세는 항상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왕비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사치와 향락에 찌들었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우유부단한 국왕과 함께 국민들의 봉기에 의해 베르사이유 궁을 떠나게 된다.

2.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의 미용문화 분석

1) 등장 인물의 성격분석

① 마리 앙투아네트

오스트리아 여왕 마리아 테레즈의 딸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왕녀으로서의

자존심이 강하고 특유의 당당함이 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무뚝뚝한 남편 루이 16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지만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귀여운 여성이다. 철부지 나이에 왕비에 올라 공허한 마음을 머리카락, 보석 등으로 치장하기 시작하면서 화려하고 세련된 차림으로 프랑스의 패션리더로서 자리잡게 된다.

② 루이 16세

자신의 기질적인 문제로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루이 16세는 성격이 강한 왕비를 이기지 못하는 성품이다. 우유부단한 면이 많으며 왕으로서의 위엄은 있으나 힘없고 허울 좋은 왕으로 그려진다.

③ 마담 뒤바리

돈을 주고 계급을 매수한 루이 15세의 정부이다. 간교하고 천박하며 누구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대하는 성격이다. 계급의 차이에 대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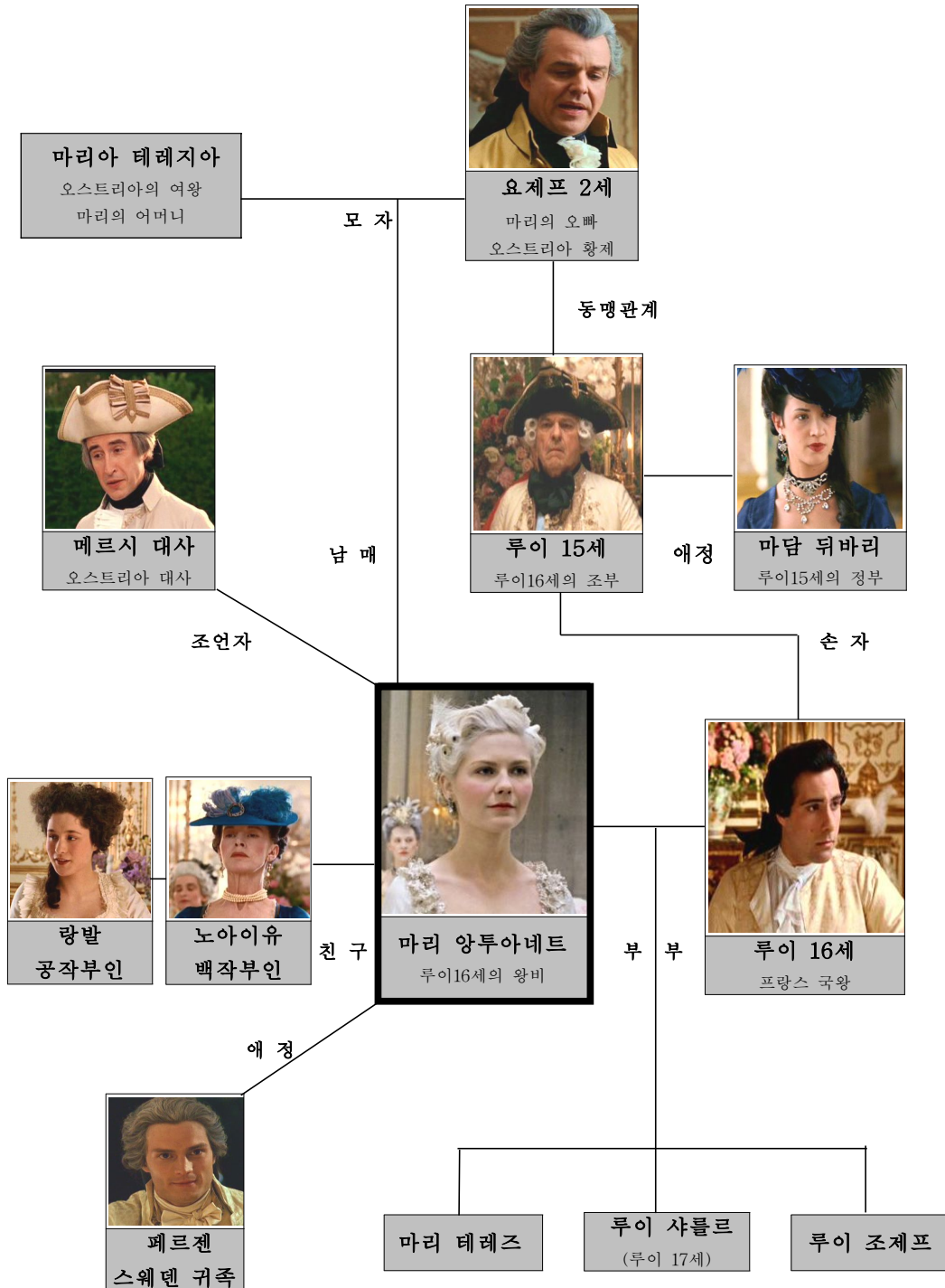
④ 노아이유 백작부인

고상하고 도도한 성품으로 프랑스 황실의 살림을 주관하며 갖 시집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관련 예법 등을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가르치는 연륜 있는 귀족으로 그려진다.

⑤ 메르시 대사

항상 마리 앙투아네트 곁에서 조언과 충언을 아끼지 않는 인물로 왕비의 본질적 기질을 잘 알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동맹을 염려하는 여왕의 마음을 대신하여 전하는 온화하지만 책임감 있는 성품의 소유자이다.

<표4>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의 인물 관계도



2) 등장인물의 미용문화 분석

① 여자

ㄱ.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유행문화의 선두주자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순수하고 청순한 모습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왕비의 모습이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패션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그림27], [그림28], [그림29]

영화의 여주인공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가장 화려하면서 세련된 색상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에 어울리는 화려한 장식과 소재, 장신구 등을 매치시켰다. 왕비라는 역할에 알맞게 고급스럽게 그려졌으며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통하여 로코코라는 시대적 특징이 확실히 표현되었다. 밝고 화사한 파스텔 계열의 색상의 사용은 그녀가 유행의 근원지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황태자와의 결혼식, 루이 16세의 대관식에서는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골드와 크림 컬러의 의상 및 장신구를 착용하여 근엄함과 격조 있는 왕비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짧은 웨이브의 헤어스타일에서부터 화려한 장식의 모자와 로코코시대에 유행했던 거대한 머리형에 이르기까지 마리 앙투아네트를 통하여 당시의 트렌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깃털, 리본, 꽃, 보석 등으로 치장된 헤어는 머리에 파우더를 뿌려 백발처럼 보이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유행에 맞추어 얼굴도 매우 희게 강조하였다. 볼에는 빨갭게 연지를 칠하고 입술도 이에 맞추어 붉게 메이크업 하였다. 목걸이, 파라솔, 부채, 장갑 등의 장신구로 의상을 빛냈으며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구두도 볼 수 있다.

로브 아 라 프랑세즈, 로브 아 라 폴로네즈 등 여러 가지 복식을 선보이는데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화려함이 있는 황태자비 시절의 의상은 파스텔톤의 블루와 핑크, 옐로우 컬러 등을 사용하여 어린 마리 앙투아네트를 표현하였

다. 로코코 시대의 취향이 짙었던 이 시대에 특징인 풍부한 주름 레이스로 여성미를 강조 하였으며 다양한 장식요소로 화려함을 배가 시켰다. 극의 중반부에서는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도 의상과 장식요소가 배재하며 헤어, 메이크업이 단순화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색상이 어두워지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표출되었다.



그림27. 영화 속 마리 앙투아네트의 다양한 헤어스타일



그림28. 영화 속 마리 앙투아네트의 메이크업



그림29. 마리 앙투아네트의 다양한 의상들

ㄴ. 마담 뒤바리

간간하고 고약한 성격의 마담 뒤바리는 강렬한 색상의 레드, 바이올렛계열의 원색을 사용하여 특유의 표독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30] 낮은 계급 출신인 뒤바리는 왕비나 귀족과는 달리 화려하지만 단조로운 장식을 하였고 머리는 검은색으로 강한 성격을 나타내었다. 당시 유행하였던 부채, 모자, 깃털장식과 화려한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그림30. 강렬한 색의 의상을 입은 마담 뒤바리



그림31. 귀족여성들의 헤어스타일

ㄷ. 귀족

노아이유 백작부인, 랑발 공작부인, 샤르 공작부인은 영화 속에서 로코코시대의 귀족부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을 살펴보면 당시의 최신 유행경향을 알 수 있는데 다양한 색상의 사용으로 화려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나타내었고 머리에는 하얀 가루를 뿌렸으며 모자나 깃털, 꽃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그림31] 메이크업도 얼굴에 백납분을 칠하여 하얗게 만들었고 연지를 발라 볼은 발갛게 하여 어려 보이게 만들었으며 패치의 유행으로 하얗게 칠한 얼굴위에 검게 패치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 이러한 메이크업 경향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림32], [그림33] 화려한 직물과 레이스, 리본의 사용하여 로코코의 아름다운 예술작품과도 같은 미용문화를 표현하였다. 줄무늬, 꽃무늬 등의 옷감이 많이

쓰였고 조화나 코르사주(corsages)의 꽃장식과 주름장식으로 화려함을 극대화시켰다.



그림32. 백납분을 칠한 귀족 여성의 메이크업



그림33. 영화 속 귀족 어린이들의 모습

② 남자

ㄱ. 루이 16세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화이트와 크림, 골드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때로는 강렬한 색상인 블루나 레드로 신분적인 강인함이 표현되었다.

1780년대 당시 가장 유행하였던 백 위그스타일을 [그림34] 주로 연출하였고, 까만 리본으로 묶어 단정하게 연출된 타이위그도 나타났다. 또한, 18세기 말기로 접어들수록 과도한 머리분을 사용하였다. 황태자 시절 단색의 프록과 베스트에 바지를 입었고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실크나 벨벳 소재의 화려한 자수가 놓여진 아비 아 라 프랑세즈를 즐겨 입었다. [그림35]

ㄴ. 귀족

대부분의 귀족들의 헤어스타일은 백 위그와 타이 위그로 연출되었다. 주로 가발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때때로 피그테일 위그도 볼 수 있다. 다

양한 색의 가발로 멋을 냈으며 머리분도 과도하게 사용되었다. 메이크업에 경우, 여성과 마찬가지로 백납분을 발라 얼굴을 하얗게 표현하였고 붉은 연지를 사용하여 빨갛게 표현되었다. [그림36]

보통 궁정 회의에서의 의상은 정갈한 블루 계열의 프록을 입고 백 위그를 하였으나 화려한 궁중문화가 성행된 시기로 아름다운 자수가 놓여진 스타일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트라이콘 햇(tricorn hat)과 지팡이는 귀족들의 필수품이었으며 모자에도 깃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그림37]

사실적 고증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와 동시대의 미용문화를 헤어, 메이크업과 패션으로 나누어 남녀로 분류하고 정리 한 것은 <표5>, <표6>이다.



그림34. 백위그의 루이 16세



그림35. 루이 16세의 궁정복















그림36. 귀족남성들의 헤어와 메이크업



그림37. 귀족 남성들의 패션

<표5> 동시대 미용문화와 영화에 나타난 미용문화 비교 - 여자

여 자	헤어·메이크업	18세기			
		영 화			
	패션	18세기			
		영 화			

<표6> 동시대 미용문화와 영화에 나타난 미용문화 비교 - 남자

남 자	헤어·메이크업	18세기			
		영 화			
	패션	18세기			
		영 화			

IV. 로코코시대 미용문화의 재해석

1. 작품의도 및 방법

아름다움의 극치였던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는 유행에 민감하고 가꾸기를 좋아하는 현대 여성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잔잔하고 섬세한 곡선미의 로코코 양식은 여성미가 강조되고 세련되어 지극히 장식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현대 트렌드에도 반영되었다. 18세기의 찬란했던 복식과 미용문화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헤어와 메이크업도 이미지에 맞추어 재조명 되었다.

이러한 점에 아이디어를 얻어 로코코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마리 앙투아네트>를 선정하여 당시의 미용문화를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새로운 트렌드로 현대 여성들의 기호에 맞게 재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헤어와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현대적인 감각과 미를 덧붙여 18세기의 미용문화를 작품을 통하여 패션쇼나 이미지 메이크업으로도 응용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헤어와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 현대적인 요소와 부합 시켜 새로운 스타일의 개발의 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

작품의 제작 방법은 18세기에 보여졌던 다양한 헤어 스타일과 메이크업을 모티브로 앞서 연구한 역사적 자료들과 영화를 통해 비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하였고 모델에게 직접 시연하여 사진으로 제작하였다.

2. 작품 및 설명

1) 연구자의 작품 1 - 조형적인 헤어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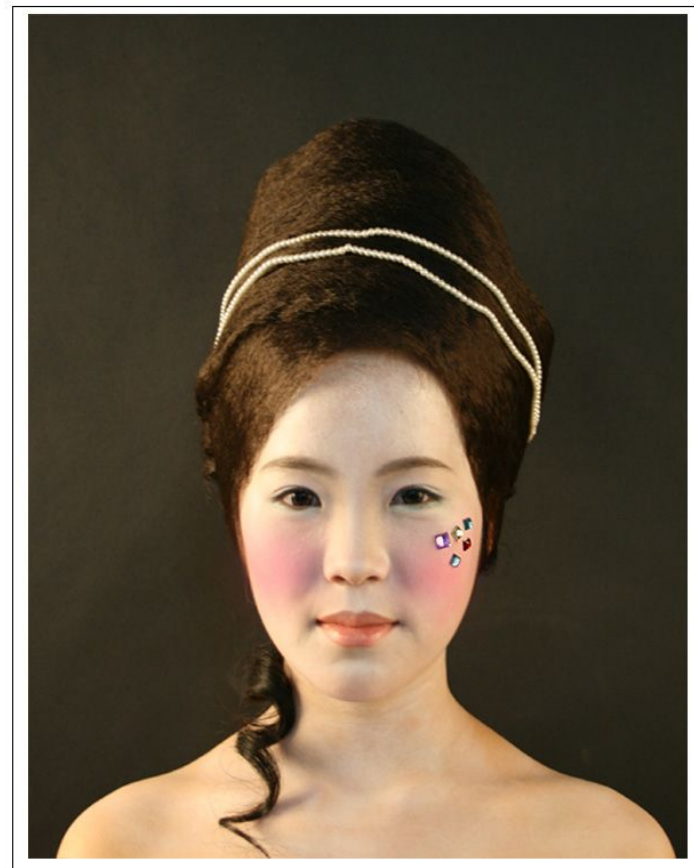
- ① 재 료 - 메이크업베이스, 수분크림,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
베이비 파우더, 블러셔, 립글로스, 헤어피스 등
- ② 작품설명 - 조형성이 강한 헤어스타일에서 모티브를 얻어 헤어피스를 사용하여 연출하였다. 베이비 파우더로 당시 유행하였던 머리분의 효과를 주었으며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피부와 속눈썹까지 커버하여 과장된 블러셔와 함께 이미지를 강조해주었다.



[그림38] 조형적인 헤어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2) 연구자의 작품 2 - 푸프(pouf) 스타일을 이용한 패치 메이크업

- ① 재 료 - 메이크업베이스,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쉐도우, 마스크라, 스톤, 진주줄, 헤어피스 등
- ② 작품설명- 푸프스타일(높은 머리형)이 트렌드였던 헤어스타일을 바탕으로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헤어를 연출하였다. 메이크업은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하얀 피부의 깨끗한 이미지로 만들었으며, 패치를 그리거나 붙였던 것을 다양한 색상의 스톤을 붙여 현대성을 강조하였다.



[그림39] 푸프(pouf) 스타일을 이용한 패치 메이크업

3) 연구자의 작품3 - 웨이브(wave)을 이용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 ① 재 료-메이크업 베이스, 베이비 파우더,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쉐도우, 롤 헤어피스, 립글로스 등
- ② 작품설명-깨끗하고 하얀 피부표현을 위하여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웨이브과 롤 헤어피스로 청초하고 단아한 여왕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40] 웨이브(wave)을 이용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4) 연구자의 작품 4 - 업스타일을 이용한 화이트 메이크업

- ① 재 료 - 메이크업 베이스, 베이비 파우더, 화이트 스틱 아이쉐도우, 스쿠루 브러쉬, 피치망사, 립글로스 등
- ② 작품설명- 헤어스타일은 부풀려서 높게 깔끔한 형태로 연출하였다. 메이크업은 창백해 보이도록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최대한 밝고 깨끗하게 표현해주었다. 속눈썹을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커버하였고 피치 망사 헤어 오브제를 이용하여 화사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41] 업스타일을 이용한 화이트 메이크업

5) 연구자의 작품 5 - 투페(toupee)를 응용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 ① 재 료 - 메이크업 베이스, 베이비 파우더, 블랙 젤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펜슬, 장미 장식, 벨벳 리본 등
- ② 작품설명- 앞머리(투페)를 부풀린 형태로 헤어 아랫부분은 굵은 웨
이브 컬을 하였다. 검정 장미 장식과 벨벳 리본으로 장식적인 포인트를
주었다. 본래 모델이 가지고 있던 얼굴의 점을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하
여 극대화 시켜 로코코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였던 패치의 효과로 연출
하였다.



[그림42] 투페(toupee)를 응용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6) 연구자의 작품 6 - 헤어 파우더를 이용한 헤어스타일과 패치 메이크업

- ① 재 료- 메이크업 베이스,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 베이비파우더, 속눈썹, 스톤, 블러셔, 아이쉐도우 등
- ② 작품설명- 로코코의 장식적인 요소들이 현대에도 자주 사용 된다는 점에서 굵은 웨이브 주어 머리를 부풀렸다. 헤어 스프레이로 고정시킨 후 베이비 파우더를 뿌려 머리분의 효과를 주었다.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흰 피부로 만들고 핑크 블러셔를 발라 스톤을 붙여 현대적인 감각의 쇼 메이크업으로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43] 헤어 파우더를 이용한 헤어스타일과 패치 메이크업

7) 연구자의 작품 7 - 헤어 블레이드를 이용한 로코코 메이크업

- ① 재 료 - 메이크업베이스,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 블러셔, 아이쉐도우, 화이트 헤어 블레이드, 진주줄 등
- ② 작품설명- 18세기에 유행하였던 여러 가지의 위그와 머릿분의 사용에 착안하였다. 현대의 트렌드인 단발머리와 접목시켜 화이트의 헤어 블레이드로 연출하였다. 피부톤은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을 발라 블러셔로 당시에 유행하였던 연지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그림44] 헤어 블레이드를 이용한 로코코 메이크업

8) 연구자의 작품 8 - 오브제를 이용한 헤어와 메이크업1

- ① 재 료 - 헤어 스프레이, 베이비 파우더, 메이크업 베이스,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 핑크 블러셔, 립틴트, 립글로스, 망사
- ② 작품설명 - 패션리더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모티브를 얻어 파스텔톤의 망사를 오브제로 사용하였다. 왕비로서의 위엄을 표현하였다. 피부표현은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과 핑크 블러셔로 차가우면서도 화사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45] 오브제를 이용한 헤어와 메이크업

9) 연구자의 작품 9 - 업스타일을 이용한 내추럴 메이크업

- ① 재 료 - 쉬머릭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쉬머릭 파우더, 파우더, 깃털, 립글로스 등
- ② 작품설명 - 장식적인 헤어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던 18세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가벼운 느낌의 업스타일에 깃털을 이용한 장신구를 더함으로써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투명한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단아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46] 업스타일을 이용한 헤어와 메이크업

10) 연구자의 작품 10 - 로코코시대의 헤어스타일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

- ① 재 료 - 쉬머릭 프라이머,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 화이트 쉬머 아이
쉐도우, 파우더,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 스피치 립글로스,
아프리콧 블러셔 등
- ② 작품설명 - 컬링을 이용하여 헤어를 연출하였으며 메이크업은 화이트 쉬
머 아이쉐도우를 믹싱한 파우더로 윤기 있는 피부로 만들어 주었다. 18세기
귀족들의 도도함과 당당함을 표현하고자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눈썹
과 속눈썹을 흰색으로 커버하여 이지적인 분위기의 쇼 메이크업으로도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47] 로코코시대의 헤어스타일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

V. 결 론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해온 화장은 피부 표면에 직접 행해진다는 한계가 있어 다른 치장 요소에 비해 그 표현 방법 및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헤어스타일의 경우는 장식적인 요소들과 조형성이 가미 되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헤어와 메이크업은 패션과 함께 유행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형태로 자리 잡아 미용문화로 형성되었다.

본 논문은 18세기 로코코시대를 배경으로 한 미용문화의 통합적인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헤어와 메이크업 스타일은 당시의 총체적 가치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18세기 로코코시대의 헤어의 특징은 남녀 모두 조형성이 강조된 형태로, 여러 종류의 가발과 머리분을 사용하였다. 메이크업은 하얗고 창백하게 표현하고 붉은 연지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귀족 중심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로코코의 미용문화로 형성되었다. 또한 복식문화가 눈에 띄게 발전한 시기로 다채로운 종류의 직물로 장식의 사용되어 풍성하고 수려하였다.

셋째, 로코코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통하여 당시의 미용문화와 비교할 수 있었고 사실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관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분석한 이미지에서 모티브를 얻어 창의적인 재해석으로 현대와 접목시켜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품을 전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를 모티브로 하여 당시의 미용문화를 다각도에서 응용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창의적인 트렌드의 개발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형성을 강조한 헤어와 메이크업을 통하여 평면적인 표현방식을 탈피한 오브제 요소가 강조된 새로운 헤어·메이크업 스타일을 창출할 수 있었다.

셋째, 18세기의 미용문화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에서 벗어나 패션과 예술적인 이미지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용문화는 단순히 인간의 얼굴을 중심으로 외적인 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가치를 상징하여 내적, 외적으로도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미용문화가 차지하는 그 문화적 중요성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은 미용문화 발전과 트렌드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미용문화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개념보다는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연구가 많은 관계로 자료가 미비하여 복식사에 나타난 사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18세기 로코코시대의 헤어·메이크업의 기준을 세우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통합 미용문화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으로 학문적인 기초자료가 되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트렌드를 창조하는 근원이 바뀐다. 토탈 스타일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시대적인 배경은 중요한 모티브이므로 본 연구에서 미비하였던 패션과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논의가 이루어져 한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를 창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 설혜심.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 한길사, 2002.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2006.
- 이정옥 외.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9.
-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안, 2006.
- 정현진 외. 『미용문화사』. 광문각, 2004.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 조진애 외. 『서양복식의 역사』. 경춘사, 2001.
- Dominick Parker. 『화장술의 역사:거울아, 거울아』. 시공사, 1998.
- James Laver. 『서양 패션의 역사』. 정인희 역. 시공아트, 2005.
- J.Anderson 외. 『세계 패션사』. 윤길순 역. 간디서원, 2005.
- Lamm, Robert Carson. 『서양 문화의 역사Ⅲ』. 이희재 역. 사군자, 2001.
- Robyn Cosio. 『눈썹의 역사』. 허준 역. 동서교류, 2005.
- 青木英流. 『서양화장문화사』. 유태순 외 역. 동서교류, 2004.

2. 국외 서적

- François, B. “*A History of Custume in the West*”. London:Thames and Hudson International Ltd.1967.
-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London : Herbert Ltd. 1984
- John Ligget, “*The Human Face*”. New York:stein and day.
- Mary Brooks Picken.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 Funk and Wagnalls, 1973
- Sara Pendergast. “*Fashion, Costume and Culture:clothing, headwear, body*”

decorations, and footwear through the ages". Michigan:UXL, 2003-2004.

3. 논문 및 학술지

안유리. "18세기 로코코시대의 헤어 패션의 경향",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2004.

안현경. "17·18세기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전문대 논문집, 1997.

이옥순.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두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7

황윤정 외, "로코코시대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003

4. 인터넷 자료

<http://www.englishcountrydancing.org>

<http://gallery.villagehatshop.com>

<http://www.google.com>

5. DVD 자료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 (Marie-Antoinette, 2006), Sony Pictures.

■ 그림 자료 출처

<그림1>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안, 2006. p. 80

<그림2> 조진애 외. 『서양복식의 역사』. 경춘사, 2001. p 308

<그림3>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안, 2006. p. 108

<그림4> 조진애 외. 『서양복식의 역사』. 경춘사, 2001, p 308

- <그림5>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 246
- <그림6>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 238
- <그림7>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안, 2006. p. 186
- <그림8> 이정옥 외.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9. p. 220
- <그림9> 이정옥 외.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9. p. 268
- <그림10>, <그림11> <http://image.google.com>
- <그림12> <http://www.google.com>
- <그림13> <http://me.johannaost.com>
- <그림14>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안, 2006. p. 220
- <그림15>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안, 2006. p. 209
- <그림16>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안, 2006. p. 223
- <그림17>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안, 2006.p. 222
- <그림18> J.Anderson 외. 『세계 패션사』. 윤길순 역. 간디서원, 2005.
p. 270
- <그림19>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244
- <그림20> 조진애 외. 『서양복식의 역사』. 경춘사, 2001. p. 330
- <그림21>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249
- <그림22>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256
- <그림23>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255
- <그림24> J.Anderson 외. 『세계 패션사』. 윤길순 역. 간디서원, 2005.
p. 263
- <그림25> 조진애 외. 『서양복식의 역사』. 경춘사, 2001. p. 322
- <그림26> <http://me.johannaost.com>
- <그림27> ~<그림37>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 (Marie-Antoinette, 2006),
Sony Pictures.
- <그림38> ~<그림47> 연구자의 작품 1 ~ 연구자의 작품 10

ABSTRACT

A Study on Beauty Culture about Rococo of the 18th Century
- focusing on <Marie-Antoinette> -

Lee, You - Na

Major in Make-up & stylist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for the value of beauty in modern society, the role is being taken serious view of as silent means to be able to speak for oneself, and interest for it is increasing continuously. This society tendency became the source to form the action to be beauty culture as independent culture.

Beauty culture is settling as trend to lead one society, and mass media are playing the best media role in creating and expressing trend. While the pervasive effect of vogue through media has very great influence, gorgeous and sensual Rococo period has often been used as theme in various fields as diverse tendencies are expressed than any other period.

Visual image formation that women take serious view of appears through hair and make-up. As for the modern women

to take serious view of vogue and decoration as one of self-expression and beautiful Rococo period, there is a part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modern women. So, it became the motive to reinterpret the beauty culture of the 18th century modernly by studying and analyzing it. Modern women take serious view of hair and make-up as one of self-expression. So, this researcher tries to reinterpret the gorgeousness and femininity of Rococo period as new beauty trend by making it into one image form and expressing it.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beauty culture of the 18th century by classifying it into hair, make-up, and fashion.

By taking the point that the study on beauty culture which compiled hair and make-up as one is small minority while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hair or dress and its ornaments are majority into consideration, this researcher studied then period background, hair-style, make-up, and fashion by referring to literature, thesis and scientific journal related to dress and its ornaments and make-up beauty for integrated study. In addition, for comparative analysis study through movie, this researcher compared and analyzed by choosing <Marie-Antoinette> that Rococo style showed most conspicuously.

In main discourse,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social background and feature of Rococo period and explained the

theoretical concept of hair-style, make-up, and dress and its ornaments which showed in those days.

Next, this researcher compared the hair, make-up, and fashion tendency of the 18th century which appeared in movie <Marie-Antoinette>. This researcher expressed as work by reinterpreting with style to be able to apply to women in modern society on the basis of this base.

As the result, this researcher presented the possibility to be able to develop with colorful and creative style, and it could be seen that it may be applied to daily life also without unreasonableness.

For image creation, any one among hair, make-up, and fashion should not be overlooked. For the beautiful decoration of women, total styling which connects each independent domain acts as important element. So, study on integrated beauty culture and new reinterpretation to be based on it will be base manure to form new trend as well as scientific base data.